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갑은 근대,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무지한 자는 외부 원인들에 의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달림을 받아 참된 마음의 평화를 결코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신과 사물을 모르는 것처럼 산다. 이에 반해 현자(賢者)는 거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자신과 신과 사물을 인식하며, 항상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을: 우리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주체적 진리이다. 주체적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신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신 앞에 홀로 서서 주체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갑은 인간을 무한한 실체인 신의 유한한 양태로 본다.
- ② 갑은 신을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실체로 본다.
- ③ 을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④ 을은 인간을 신에 귀의하여 신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존재로 본다.
- ⑤ 을은 갑과 달리 신을 실존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로 본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 ㉡에 대한 공통된 관점으로 옳은 것은?

○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분별 작용을 버린다면 도(道)와 한 몸을 이루어 두루 통하게 된다. 이것을 ㉠ (이)라고 한다.
 ○ 먼저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 귀로 소리를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다음에는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로 들어라. 귀는 소리를 들을 뿐이고 마음은 대상을 인지할 뿐이지만 기는 텅 비어 모든 것을 수용하니, 이렇게 텅 빈 기로써 사물을 대하면 그 빈 곳에 도가 들어온다. 이렇게 도가 들어오도록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것을 ㉡ (이)라고 한다.

- ① 절대적 자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수양하는 것이다.
- ② 편견을 버리고 선악을 구분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 ③ 도덕규범에 맞추어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 것이다.
- ④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 ⑤ 일체의 관념을 잊어버려 본성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다.

[3~4] 갑은 중국 사상가, 을과 병은 한국 사상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성(性)은 심(心)이 가지고 있는 이(理)이고, 심은 이가 모이는 곳이다. 성은 이이고 심은 이것을 포함하여 싹고 있다가 퍼서 베풀어 쓰는 것이다. 즉 움직이는 곳은 심이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이다.
 을: 기질의 성(性)은 본연의 성을 겸(兼)한다.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두 변(邊)으로 나눌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인성(人性)의 본연과 기질도 나누어 두 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병: 사람의 성(性)은 단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다. 선을 좋아함으로 해서 측은(惻隱)과 사양(辭讓)의 마음이 있게 되며, 악을 싫어함으로 해서 수오(羞惡)와 시비(是非)의 마음이 있게 되며, 그 사심(四心)이 있음으로 해서 인의예지의 덕을 이룰 수 있다.

3. 질문에 대한 갑, 을, 병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질문	갑	을	병
①	인의(仁義)의 삶을 살기 위해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한가?	예	예	예
②	사덕은 성(性)이고, 사단은 정(情)인가?	예	예	아니요
③	사단은 사덕의 존재를 알게 해 주는 실마리인가?	예	예	아니요
④	사덕은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인가?	아니요	아니요	예
⑤	사단은 일상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형성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4. 위의 을이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맹자는 성선(性善)의 이치를 드러내어 밝히면서 사단을 가지고 말하였으니, 사단이 이에서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자가 말하기를, “사단은 이의 발이고, 칠정은 기의 발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사단은 이에서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이의 발이라 한 것은 진실로 의심할 것이 없다.

- ①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 ② 사단의 선함과 칠정의 선함을 구분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③ 이는 발하는 것이 아니라 발하는 까닭일 뿐임을 모르고 있다.
- ④ 기질지성은 발하는 과정에서 본연지성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⑤ 사단은 순선한 것이지만 칠정은 악으로 흐를 수도 있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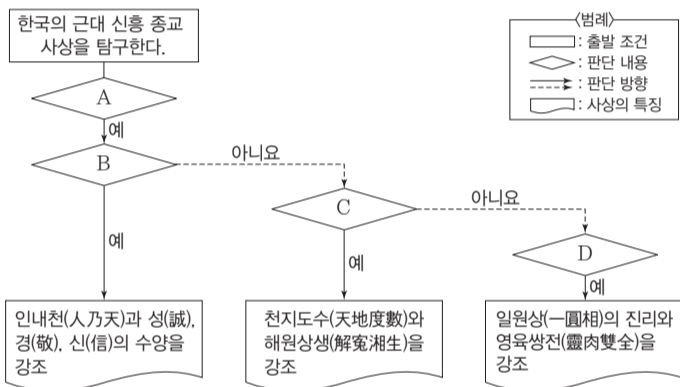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마음의 본성을 강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교종의 말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 먼저 본래 마음의 본성이 깨끗하고 번뇌가 공(空)하다는 것을 깨친 뒤에 이를 바탕으로 거듭 수행하는 것이 바른길이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경전 공부를 중심으로 깨달음에 도달해야 한다.	✓		✓	✓	
단박에 깨친 이후에도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	✓			✓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 선종을 조화시켜야 한다.		✓		✓	✓
불성을 습득하기 위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6. 그림의 A~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A: 신분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ㄴ. B: 후천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지향해야 하는가?
 ㄷ. C: 현세에서 지상 낙원을 실현할 수 있는가?
 ㄹ. D: 기존의 불교를 개혁하고 생활 속의 수행을 강조해야 하는가?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욕구들 가운데 어떤 것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이고, 어떤 것은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으며, 어떤 것은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도 않고 단지 공허한 망상에서 파생된 것이다. 예를 들면 배고픔·갈증·추위·수면욕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이며, 산해진미의 음식과 고급 술, 성적 환락에 대한 욕구는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인 욕구는 아니다. 반면에 명예욕·권력욕·지배욕·소유욕은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다.

- ① 참된 쾌락은 인간의 욕구를 완전하게 충족할 때 온다.
 ② 공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있는 삶은 쾌락을 증진시킨다.
 ③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최대한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④ 참된 쾌락을 얻으려면 이성적 삶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⑤ 자연의 섭리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이다.

8.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에 대해 을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만약 유용성이 도덕적 감정의 근원이라면 그리고 이 유용성이 항상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로부터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곧바로 우리의 시인(是認)을 받으며 선한 의지가 그것을 추천한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을: 인간의 자기애에 근거한 자연적 경향성은 필연적으로 도덕 법칙에 따른 행위를 방해한다. 도덕은 그 자체로서 가치 있고 그 자체로서 숭고하므로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될 수 없고 다른 무엇으로 환원될 수 없다.

- ① 의무 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② 이성만으로는 어떤 의지 작용의 동기가 될 수 없다.
 ③ 동정심에 의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④ 감정은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⑤ 도덕적 행위의 원동력은 공감 능력이다.

9.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모든 사람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근면과 자본을 바탕으로 다른 누구와도 완전히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군주는 개인의 노동을 감독하여 사회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인도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해방된다.
 을: 개인들이 서로 고립된 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할수록 사회적 이익의 추구는 희미해지거나 무시될 수밖에 없다. 국가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과 국내 고용을 최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투자 계획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 X축의 낮은 점
 ㉡: Y축의 높은 점
 ㉢: Z축의 높은 점
 ㉣: X축의 높은 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분배 영역에 적합한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이 있다. 돈이 성직의 영역에서 분배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다른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경건성이나 신앙심이 특별한 역할을 해서도 안 된다. 시장에서는 죄인이건 아니건 누구나 상품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시장은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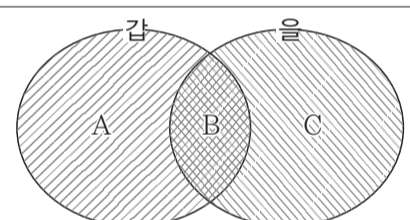
- ① 분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인가?
 ② 안전과 복지는 필요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가?
 ③ 돈과 상품은 자유 교환의 원칙에 의해 분배되어야 하는가?
 ④ 서로 다른 영역의 가치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분배되어야 하는가?
 ⑤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치를 강조해야 하는가?

11.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덕이 곧 지식이며, 모든 덕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누구든지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알기만 한다면, 그는 앎이 지시하는 것과는 다른 것들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의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척도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나는 ㉠ 고 생각한다.

- ① 무지는 악의 원인이 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②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윤리가 존재함을 부정하고 있다
- ③ 각 개인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④ 선에 대한 참된 앎이 선한 행위를 보장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악을 행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12.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정치를 하면 천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p> <p>을: 성인(聖人)이 고요히 있는 것을 좋아하니 백성이 스스로 바르게 되며, 일부러 행하지 않으니 백성은 저절로 부유해지고, 욕심을 내지 않으니 백성은 저절로 다듬지 않은 통나무처럼 순박하게 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보기〉

- ㄱ. A: 인의(仁義)를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
- ㄴ. B: 백성을 무지(無知) 상태에 있게 해야 한다.
- ㄷ. B: 백성이 타고난 본성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ㄹ. C: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정치[無爲之治]를 해야 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13.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진 사람은 자신이 서고자 할 때 남도 서게 해 주며, 자신이 이루고자 할 때 남도 이루게 해 준다. ○ 임금의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나)	<p>법령으로써 이끌고 형벌만을 시행하려고 하면 백성들은 법령과 형벌을 빠져나가려고 할 뿐 죄를 짓고도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 백성들은 수치를 알게 되고 올바르게 된다.</p>

- ①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리면
- ② 상과 벌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
- ③ 예를 통해 타고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면
- ④ 친소의 구별이 없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면
- ⑤ 만물을 차별하지 않는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면

14. (가)의 입장에서 대답할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새로운 질서가 구축된 사회에서는 생산 수단을 개인들의 손에서 빼앗아서 전 구성원의 책임과 계획에 따라 경영되도록 해야 한다.</p>
(나)	

- ①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됩니다.
- ②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도래하여 국가 기능이 최소화됩니다.
- ③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누구나 필요한 만큼 분배받습니다.
- ④ ‘국가에 의한 자유’가 보장되고 사적인 소유 제도가 폐지됩니다.
- ⑤ 개인의 자유 경쟁에 기초한 진정한 시장 경제 체제가 확립됩니다.

15. 다음 신문의 ㉠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년 ○월 ○일

㉠

현대인들은 경제 체계와 정치 체계 속에서 돈과 권력의 힘에 지배를 받아 거짓말이나 그릇된 말, 진실하지 못한 말이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자들이 참되고 옳으며, 진실하고 이해 가능한 말을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행위 원칙은 그 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자유롭게 그 원칙에 동의할 경우에만 타당성을 지닌다.”라고 주장한 어느 서양 사상가의 견해에 잘 나타나 있다.

- ①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자
- ②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과의 담론을 자제하자
- ③ 담론에 참여한 사람은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말자
- ④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도 담론에 참여시키자
- ⑤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담론에 참여한 사람들의 위계질서를 정하자

16. (가)의 고대 그리스 사상가의 입장에서 대답할 때, (나)의 ㉠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지나침과 모자람은 악덕의 특징이고, 중용은 덕의 특징이다. 악덕은 정념과 행동에서 모자라거나 지나친 데 비해, 덕은 중간의 것을 발견하고 선택한다.
(나)	갑: 어떤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을: <input type="text"/> ㉠

—<보 기>—

- ㄱ. 용기의 이데아를 이성을 통해 파악한 사람입니다.
- ㄴ. 용기 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 ㄷ. 용기가 자신의 타고난 성품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 ㄹ. 비겁에 치우치지 않고 만용에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육체나 정신, 영혼의 건강을 보호하는 최고의 책임자는 바로 각 개인 자신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일이 잘못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결과를 맞게 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보 기>—

- ㄱ. 개인에 대한 사회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ㄴ. 각자는 개성에 맞게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 ㄷ. 개인은 집단의 생각이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ㄹ.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개인의 행위에 대해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령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너의 행위의 결과가 지구상에서의 진정한 인간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소극적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결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 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다. “지구상에서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조건들을 위협하지 말라.”

- ① 자연은 그 자체로 보호될 가치를 갖고 있다.
- ②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다.
- ③ 현대 기술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해야 한다.
- ④ 인간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당위이다.
- ⑤ 도덕적 책임의 범위를 자연과 미래 세대로 확장해야 한다.

19.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는 도덕적인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까 하는 문제로 난처한 처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상의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선택을 위한 기준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대개 선택을 위한 기준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윤리적 가치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가치에 의해 형성된 도덕적 신념 체계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행위를 선택하게 한다.

—<보 기>—

- ㄱ. 타고난 본능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동한다.
- ㄴ. 사회적 삶을 통해서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 ㄷ.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신의 섭리에 따른다.
- ㄹ. 숙고와 반성을 통해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가)~(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유형들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유형	강조점
(가)	의사 결정 과정, 공직 선출 과정 등에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나)	시민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다)	사회 구성원들의 공적 심의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라)	전자 매체를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 ① (가)는 절차의 공정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한다.
- ② (나)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한다.
- ③ (다)는 시민들이 합리적 합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한다.
- ④ (라)는 대의 민주주의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 ⑤ (나), (다)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심의 과정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